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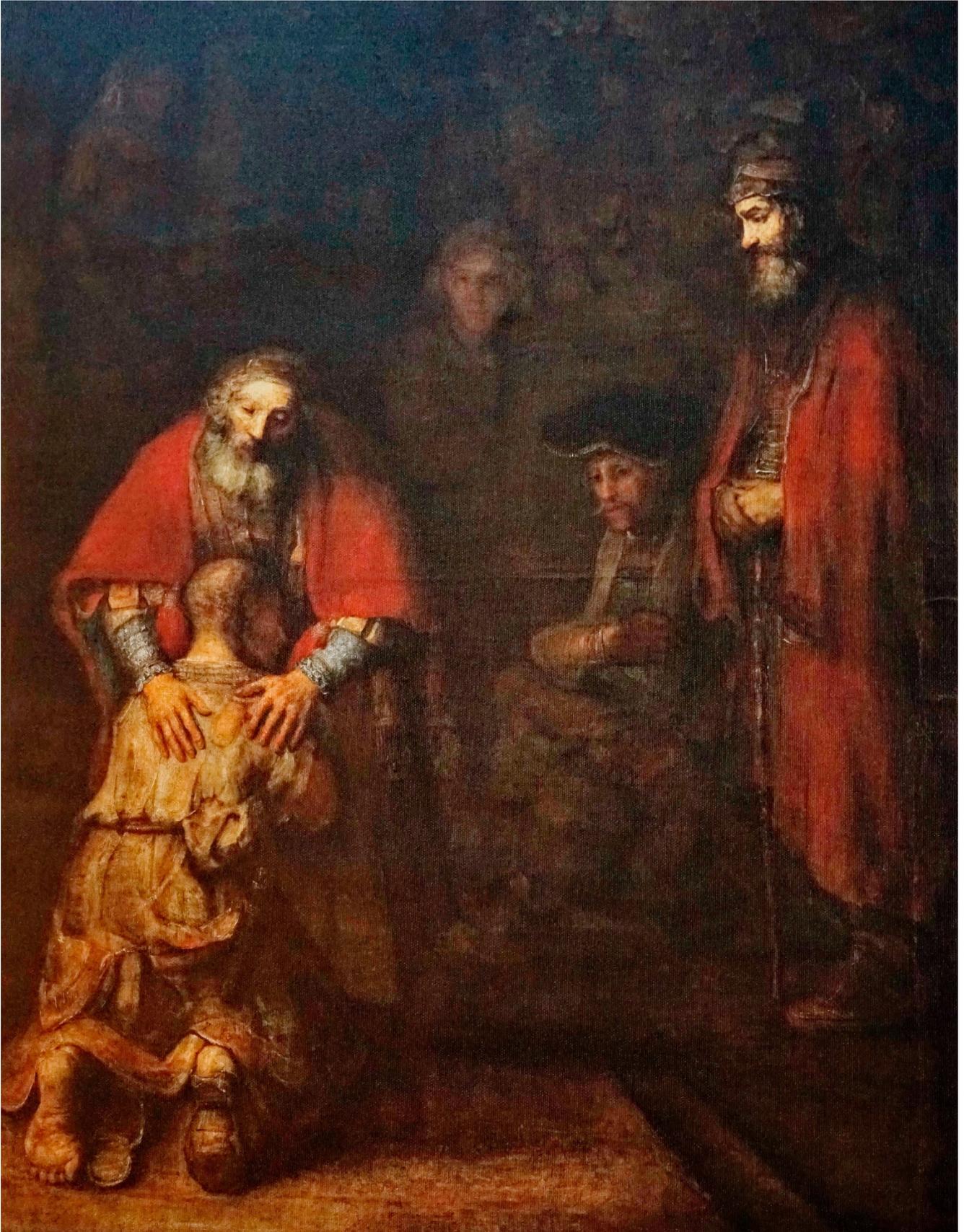
러시아 선교 여행기



<2017년 10월 4일 - 10월 12일, 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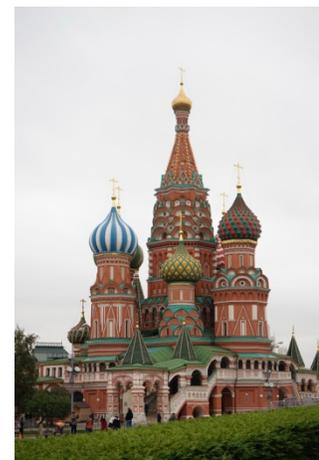
Boston Nehemiah Institute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ssachusetts 02445
www.bosni.org



차례

- 04 단장 인사 | 박찬수 목사
- 06 선교여행 보고 | 김문소 장로
- 15 10 월 6 일 아침 말씀 | 김용환 목사
- 18 10 월 8 일 주일 말씀 | 박찬수 목사
- 22 간증 | 윤만강 권사
- 25 찬양 가사 | 한글, 영어, 러시아어
- 26-32 선교 소감
 - 26 러시아 정교회 | 윤원길 장로
 - 27 이름없이 빛도 없이 | 박대위 장로
 - 29 러시아 Vision Trip 을 다녀와 | 김중연 장로
 - 30 가장 큰 선물 | 권복태 장로
 - 32 짧았지만 길었던 시간 | 김용환 목사
- 33 재정 보고 | 권복태 장로
- 34 강평회 | 김문소 장로



발행처: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발행인: 이영길
편집위원: 박찬수 김문소
사진및 디자인: 김용환
인쇄: 박대위
주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홈페이지: www.bosni.org
발행일: 2017 년 12 월 1 일

러시아 선교 여행기 발간에 즈음하여

BNI 선교원 원장 박찬수 목사



Boston Nehemiah Institute(BNI) 가족들(12 명)로 구성된 선교여행팀이 10 월 4 일부터 12 일까지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 월에 있는 단기 교수 선교사 하이티 신학교 (HIM Seminary) 파송과 이번에 평신도 중심의 선교여행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교육과 선교'라는 BNI의 양대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여행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선교비로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BNI가 첫 수료생을 배출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수동적 배움에 그치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됨은 BNI 역사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선교지 러시아는 미국의 1.7 배나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이웃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공산 혁명으로 73년간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이 나라는 1990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종교의 자유는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종교 상황을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지만 (개신교 1%), 이들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열의 하나일 정도로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200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저희 선교여행팀은 쌍프 삐찌르부르그와 모스크바 두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중 미르 선교회 소속 한인 선교사님들의 여러 주제의 선교 특강을 듣게 되었고, 고려 사람 교회에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팀은 예배에서 설교와 간증과 찬양으로 섬겼으며, 주 안에서 고려사람들과 따뜻한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과 비슷한 처지(소수민족)에 있는 고려 사람 교회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고려 사람은 참 슬픈 이주 역사를 가진 우리 동포입니다. 1937년 스탈린은 일제시대 연해주 지역에 살던 한인 거의 전부(17여만명)를 열차에 실어 중앙아시아(카작스탄, 우즈베크스탄)에 부려 놓았습니다. 현재 러시아 고려사람들은 이들의 3,4,5 세들로서 한국어는 거의 구사하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뿌리가 한민족(남한 사람도, 북조선 사람도 아닌 고려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영어 통역사로 도와주었던 이리나는 믿음도 인격도 깊이 성숙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 이고르는 충성된 주의 종(목사)이 되어 여러 러시아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소련 군대 군인으로 붉은 광장 경비병으로 근무하다가 정치적인 죄목으로 7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도피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수하여 7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 신자인데, 당신은 어떻게 1%밖에 안되





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 기독교인이 되었느냐?”는 나의 물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 사람들은 정교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개혁개방 후 선교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비로소 복음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의 러시아 그리스도인이 지금 선교사 10 명의 몫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생각하니 팀원들과 함께 기도해온 기도제목들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행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기쁨, 위로, 격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의 작은 섬김과 대접에 깊이 감사하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 사람 교회 예배와 교제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명소 관광을 통해 러시아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강행군 가운데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저희 팀들이 받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여기 작은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번 여행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한 기록으로 남겨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선교여행 보고

김문소



2017년 봄학기 BNI North class에서 가진 '선교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과제' 시간 중 박찬수 목사가 "러시아 선교" 강의 후 나눠 주신 "BNI 러시아 단기 선교 계획(안)"을 바탕으로 준비위원 3명(박찬수 목사, 권복태 장로, 김문소 장로)이 러시아 선교여행 계획을 마련하고 선교 단원을 모집했다.

- 1) 일정은 10/4 부터 12 일까지 8 일간
- 2) 지역은 썬트 피제르부르그와 모스크바 두 곳

3) 경비는 목회자는 \$1700, 평신도는 \$2300(러시아 비자 취득비 \$300 포함), 4) 단원 모집은 목회자는 박찬수 목사, 평신도는 권복태, 김문소 두 장로가 담당했다. 선교단은 총 12 명으로 두 목회자와 다섯 평신도 부부로, 박찬수 목사와 김용환 목사, 윤원길 장로와 윤만강 권사, 박대위 장로와 이진옥 권사, 김중연 장로와 김연상 권사, 권복태 장로와 서명숙 권사 그리고 김문소 장로와 김계숙 권사이다.

준비모임 장소인 주님의 교회에서 첫 모임을 6월 11일 10시에 가진 이래 한 달에 한번 또는 두번 씩 모여 총 6번의 준비모임을 가졌다. 마지막 모임인 9월 26에 드린 '러시아 선교여행 파송 예배'는 BNI 이사장 되시는 이영길 목사의 성경봉독과 말씀, 러시아 교회에서 할 찬송 3곡('좋은신 하나님,' '예수 사랑해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과 윤만강 권사의 간증, BNI 이사인 방경남 장로의 기도, 김문소 장로의 경과보고, 다같이 합심 기도 후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과 김학수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BNI 평신도 신학원 교무 위원인 유경렬 목사도 참석했다.

준비 사항은 1)러시아 비자 문제와 비자 신청과 비행기표 함께 하는 여행사 찾기, 2)호텔과 공연 예약, 3) 간단한 기본 러시아어 익히기, 4) 찬양 세곡 연습 5)선물 준비 등등 이였다. 매번 준비모임 하기 전 기도회 때 두 목사가 말씀으로 단원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켰다. 선교 여행 일정도 박 목사가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조정했고, 특히 박찬수 목사가 제안한 다음의 '6 가지 기도 제목'을 매 모임마다 되새기며 준비모임을 진행해 왔다.

1. 이번 선교여행 준비와 방문기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 비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준비과정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3. 선교사들에게 은혜(기쁨, 위로,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4. 현지인(러시아인, 고려인)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5. 명소 관광을 통해 러시아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6. 팀원 한 분 한 분 건강하고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 10 월 4-5 일 ♣

러시아 선교팀은 10 월 4 일(수) 오후 7 시 20 분에 Boston Logan Airport 에서 British Airline (BA) 으로 출발하여 10 월 5 일(목) 아침 London Heathrow 공항을 경유 BA 다른 비행기로 St. Petersburg 공항에 약 12 시간 만에 도착했다. 장석천 선교사가 우리를 반갑게 마중 나와 대절한 18 인승 밴으로 호텔 (Club Hotel Agni) 까지 쉽게 이동하여 짐을 풀고, 근처 한국식당에서 저녁을 들고, 다시 호텔에 돌아와서 선교지에

무사히 도착한 첫날 기도회를 호텔 식당 별실에서 가졌다.

♣ 10 월 6 일 ♣

10 월 6 일(금) 오전은 아침 일찍 전철로 이동하여 오전 7 시 미르 선교회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미르(MIR)선교회’ 에 갔다. 이 건물에는 ‘미르 선교회’ 사무실과 예배당이 있어 주일 오전에는 ‘한인교회’ 와 오후에는 ‘고려인 교회’가 사용한다. 김용환 목사가 설교하는 아침 예배를 선교사들과 함께 드리고, 고려인들과 함께 아침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 미르 선교사들의 특강 시간을 가졌다.



첫 시간은 장로교 목사이며 ‘미르 신학교’를 맡으신 유창현 선교사가 초교파적으로 구성되어 21 주년된 ‘미르 선교회’가 하는 일을 소개했다. 현지인 교역자와 평신도 훈련 및 미르 세미나를 하는 ‘미르 신학교’ 와 ‘미르 센터’ 의 구입과 또 도시 근처에 마련한 ‘다차’ 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었다.

이곳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이 주축이라고 말했다. 현대 자동차가 이곳에서 잘 팔려 한국에 대한 Image 가 좋아 St. Petersburg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생겼다고 한다.



세번째 강의는 장로교 목사이며 ‘미르 한인교회’ 를 맡은 이희재 선교사가 과거 운동권 학생을 변화시켜 목사로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 각자도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으로 살아 가자고 호소하였다.



네번째 강의는 미주 한인 장로교 목사이고 이곳 ‘피조물 교회’ 담임인 김도수 선교사가 83 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선교에 관심을 가져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다. 김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로는 가지 말라” 는 충고를 받고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95 년에 이곳에 와 22 년간 선교사로 지냈다고 한다. 초창기 3 년간 “지금까지 동행했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현지 신학생이 그들을 키우려는 “우리를 몹시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여” 기도가 안되어 고생했다고 한다.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 살려 주세요” 를 외치며 크게 회개하고는 창세기 4 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과 출애굽기 20 장 (십계명), 25-40 장 (성막 만드는 긴 말씀) 성경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교회개척 3 년만에 확신케 되었다. 그 후부터 그는 <선교가 예배다> 라고 정의했다. 그 밖에도 현지 교회들의 열악한 상황, 자유스럽게 노방 전도와 학교 선교하던 90 년대와 다르게 법적으로 그런 선교를 못하게 막고 있는 현재의 선교 문제점, 또 러시아 정교회 안이 icon(이콘) 그림으로 짝 찬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다.



오후 우리는 웅장한 ‘카잔 성당’ (Cathedral of Our Lady of Kazan)에 갔다. 이 성당은 Rome 에 있는 St. Peter’s Basilica 에 영향을 받아 1811 년에 러시아 정교회로 지어졌고 ‘기적을 일으키는 (miracle-working) icon (이콘)’이 있다는 이유로 1917 년 무신 주의(atheist)인 러시아 혁명으로 74 년간 icon 이 다 지워져 있었는데 1992 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갔다. 이곳은 러시아 황제들의 겨울 궁전(Winter Palace) 이었다. 우리는 약 4 시간 동안에 주로 중세기 때 명작품들을 감상했는데 특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등을 감상하며 예술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느꼈다. 또 2 만보를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근처식당에서 저녁을 들고, 호텔에 돌아와 기도회와 주일에 할 찬양 세곡을 준비하고 나니 11 시가 되어 둘째 날 잠자리에 들었다.

이어 세계 3 대 박물관에 든다는 ‘Hermitage’ 박물관에



♣ 10 월 7 일 ♣

10 월 7 일 (토)은 호텔에서 조반을 들고, 전철로 St. Petersburg 의 중심가인 넵스키 (Nevskiy Prospekt) 거리로 이동하여 첫 방문지인 ‘구세주 피의 사원 (Church on Spilled Blood)’ 에 갔다. 이곳은 1881 년에 암살된 Alexander II (1855-1881) 를 기념하여 지었고 모자이크의 극치를 이루는 성당으로 Mosaic Wall 과 Ceiling 이 75,300 sq. ft 이상의 면적에 벽옥(Jasper), 반암 (Porphyry), 대리석 (marble)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장면들을

모두 mosaic Icon 으로 그려져 있고, Alexander II's Shrine 과 Alexander Plaques 가 있는 온전히 The memory of Alexander II 위한 곳이라 wedding 이나 funeral 이나 church services 는 한 적이 없는 “A Church in Honor of the Tsar” 라 한다. 점심은 pancake 같은 'Blini,' ravioli 같은 'Pelmeni' 와 고기와 야채숙 같이 뜨끈한 'Borsch' 숙 등 러시아 민속 음식을 처음 맛보았다.

식사 후에 “북방의 Venice” 라고 불리는 St. Petersburg 내에 있는 여러 수로를 통해 제일 넓은 Neva 강에 배를 타고 나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Neva 강가에 있는 유명한 에미따쥐 박물관, 정부청사 건물, 성 이삭 성당, Peter & Paul Fortress, 러시아 현재 대통령인 Putin 이 나온 대학 등을 돌아보며 1 시간동안 배 타기를 즐겼다.



‘이삭 성당 (St. Issac’s Cathedral)’은 건축에 40 년 이상이 걸렸고, 성당 안 장식에 금이 400 kilogram 쓰인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당이다. Ceiling Painting 은 The Virgin in Majesty 라고 장식한 중앙 둥근 지붕 (cathedral cupola) 에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 가 그려진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South Doors 는 철문 (cast bronze over oak) 위에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조각되어 있고, 사방에 있는 문 앞과 위층 4 개의 돔을 바치는 48 개의 Red Granite Columns 은 Finland 에서 막대한 돈과 노력으로 수입한 것이며, 성당 네 모서리 위에 성당을 보호하는 Statues of the Apostles 은 Mark with a lion, Matthew with an angel, John with an eagle, Luke with a calf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 성당을 나와 현재 보수 공사 중이라 3 층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2 층 위의 The Dome 에 오르려고 ‘이삭 성당’ 밖에

설치된 수백 개의 가파른 계단을 숨차게 등산하는 걸음으로 걸어서 Dome 위에 올라 와 Dome 을 한바퀴 돌면서 쌍毗峇르루르그 시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장관 (breathtaking views) 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리!!!

저녁도 거르고 바삐 걸어서 미국에서 예약한 7 시 공연 Folk Show ‘Feel Yourself Russian’ 를 보려고 Nikolayevsky Palace 에 갔다. 역시 이름이 궁전 (Palace) 이라 입구에서 높은 3 층 계가 직선으로 위로 뻗어 있고 그 층계 위에 붉은 카펫이 깔려 있어 마치 우리가 왕이 된 기분으로 3 층을 걸어 올라 가는데 들려오는 모차르트의 현악 4 중주 연주를 보면서 들어선 3 층 공연장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에 독창과 남성 4 중창의 러시아 노래들과 네, 다섯 쌍이 추는 러시아 민속 춤 1 부 공연 후,



휴식시간에 Champagne 과 과일 몇 쪽과 알팍하고 동그란 과자에 줄처럼 언진 Salmon roe(연어 알) Caviar 몇개를 집어 먹고 나니 공연 2 부가 시작되어 보니 역시 1 부 공연처럼 러시아 노래와 민속춤으로 총 90 분 공연중 아는 곡은 ‘카추샤’ 와 ‘배 짓는 노래’ 뿐이었다.

♣ 10 월 8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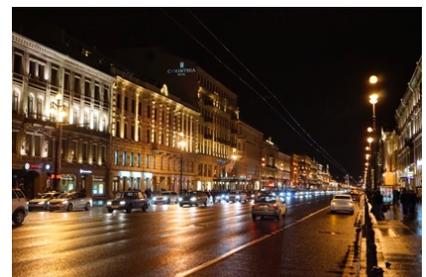
10 월 8 일 (주일)은 전철로 이동하여 ‘Russian Orthodox Church’ 를 방문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로 회중이 앉는 결상이 없고, 둘째로 설교 말씀이 없고, 셋째로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3 무 <결상, 설교, 악기 없음> 의 예배가 특이했다. 일부 예배시간이 끝났는지 예배 중에 열려 있던 중앙에 있는 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문> 이 닫히며, 예배 중에 교인들이 카톨릭과는 좀 다른 게 성호를 머리와 어깨와 가슴에 수시로 그리고는 성전내 여러 곳에 있는 Icon 에 키스를 하며 축복을 비는 경건한 모습에 깊은 신심을 볼 수 있었다. 촛불 향으로 가득 찬 성전을 나와 앞에 있는 묘지들을 둘러 보며 교회당과 묘지는 언제나 공존함을 실감했다.

오후에 이틀 전에 선교 특강을 들었던 ‘미르 선교회’ 에 다시 와서 우리가 부를 찬송들을 반주자 (장석천 목사의 사모 장경희 선교사)의 반주에 맞춰서 한번 더 연습하고는 2 시에 장석천 목사가 섬기는 ‘고려 사람 교회’ 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박찬수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가 준비한 3 찬송 “좋으신 하나님,” “예수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을 한글과 영어 그리고 러시아로 합창할 때 특히 “amazing Grace”의 영어 파트는 박대위 장로가 은혜롭게 독창을 해 더욱 빛이 났다. 이어 윤만강 권사의 간증은 러시아 이세 목사의 통역 시간이 있었기에 전달한 메시지를 더욱 음미하며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어 어린이들의 노래, 중고등부의 율동 찬양 등이 있었다.



이곳 St. Petersburg 는 추위가 일찍 와서 10 월 8 일에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킨다 해서 만찬을 하는 날이라 우리도 고려 사람들과 함께 만찬과 친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권사들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그 사이에 서로 친해져 고려인 권사들과 우리 권사들이 어울려 “아리랑” 을 함께 부르며 덩실 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고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분들과 우리들이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으로 멀리 떨어져 살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주 가까운 한 민족임을 서로 뜨겁게 실감할 수 있었다.

전철로 호텔에 돌아와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 선교 여행을 왔나” 하는 이유를 고려 사람 교회 예배 후에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또 이날 저녁에 우리는 <러시아 선교 여행 보고 책자>를 금년 중에 내기로 했다. 왜냐하면 책에 들어갈 사진은 프로 못지 않는 우리의 진속 사진사 김 목사가 있고, 인쇄는 전에 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박 장로가 있고, 책자 내용은 깊이 감명을 준 두 목사의 설교와 윤만강 권사의 살아있는



간증과 우리 선교단원들의 선교 여행 소감들과 이곳의 명소 사진들, 그리고 선교 보고서 등이면 20 여면의 책자에 들어갈 내용이 충분히 될 줄로 알아 쉽게 결정을 했다.

♣ 10월 9일 ♣



10월 9일(월) 지난 4일간 우리를 안내한 장 선교사는 쉬고, 이희재 선교사의 안내로 18 인승 밴으로 분수와 정원으로 유명한 Peterhof (Summer Palace) 를 보았다. Peter's Court 라고도 하는 이곳은 Gulf of Finland 연안에 위치해 있고, 이곳 The Great Palace (1714-21) 는 Peters the Great 이 Versailles in France 에 rival 되는 궁전을 짓도록 계획 했는데 Tsarina Elizabeth 시대에 겨울 궁전 (The Hermitage)을 설계한 Francesco Bartolomeo Rastrelli 에 의해 특유한 Baroque 요소를 갖추게 변형되어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

한참 길게 뚫린 수로 끝의 Gulf of Finland 로 흐르게 만든 The Grand Cascade 는 37 개의 금박을 입힌 청동 조각들과 64 개의 분수들과 142 개의 water jets 들이 매일 오전 11 시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뿜어 내는 분수들의 물 놀이 축제인데 내 눈에는 Niagara Fall 을 물구나무 서서 보는 장관이었다!! 마침 오늘 11 시에 맞추어 와서 이 멋진 장관을 가슴 속에 가득 담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Amber

Room 으로 유명한 'Catherine Palace'에 빗속에서 한시간 넘게 기다려 들어 갔다. 신발 위에 덧신을 신고 한국말로 안내하는 earphone 을 받아 들고 한 방 씩 설명을 듣고는 구름 별로 이동해 유명한 호박 방(Amber Room) 을 보니 벽과 천장이 Amber 호박 보석으로 짝 차 있었다. 이곳에서 나와 Pushkin Park 에 갔다. Alexander Pushkin (1799-1837) 은 러시아 평민들이 말하는 언어로 글을 써서 Tolstoy 나 Dostoevsky 를 제끼고 러시아에서 첫째가는 유명한 문학가가 됐다.



6 시에 우리가 초대 한 선교사 가족들을 만나러 서울 식당에 갔다. 세번째 이분들을 만났다. 저녁을 들면서 서로의 소감들을 나눴다. 선교여행을 온 이유를 또 알았다. "선교사들에게 은혜 (기쁨, 위로,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의 기도 제목이 소감 발표 중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BNI 선교 지원금 \$1000 을 MIR 선교회장인 유창현 목사께 전하고, 우리가 준비해 온 선물 Centrum Silver 325 tablets 두 병과 박 목사가 준비해 온 고추장을 선교사들 각 가정에 선물로 드렸다. 20 여년 전에 박 목사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영어 통역을 해 주던 '이라나 김' 전도사가 '이골' 목사와 결혼한 후 함께 와서 더욱 감격된 시간이 되기도 했다. 만찬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유창현 & 계화숙
(미르 신학교)



장석천 & 장경희
(고려사람교회)



이희재 & 김성은
(미르한인교회)



김도수 & 이경희
(새피조물교회)



성락인 & 김은숙
(미르선교회)



최광순 & 장인숙
(페테르부르크 사랑교회)



이고르 & 이라나 김
(모스크바 성결신학대학 학감)

♣ 10 월 10 일 ♣

10 월 10(화) 지난 5 일간 지낸 호텔에서 check out 하여 다시 18 인승 밴으로 Peter and Paul Fortress 에 갔다. 이곳은 1703 년 St. Petersburg 가 swamps 땅이라 많은 농노들과 Swedish 전쟁 포로들이 생명을 잃어가며 지은 요새이다. 18 세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돈을 찍어내는 'The mint' 와 1709 년 Battle of Poltava 에서 승리한 Peter the Great 를 계속 알리려고 만든 St. Peter's Gate 와 머리가 몸에 비해 무척 작은 동상 Statue of Peter the Great 이 있고, 악명 높은 캄캄한 감옥 Trubetskoy Bastion 과 St. Petersburg 의 The Beach 가 있어 여름엔 sunbather 들로 꽉 찬다고 한다.



이 해변가에서 우리는 가랑비를 맞으며 Neva 강 건너편에 보이는 The Hermitage, St. Issac's Cathedral 등을 다시 보고는 공항에 와서 장석천 선교사, 이희재 선교사, 김도수/이경희 선교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지난 5 일간의 감격적인 방문지인 쌍 피째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했다.

♣ 10 월 10 일 오후 ♣

10 월 10 일(화) 오후 2 시 40 분 St. Petersburg 를 이륙하여 4 시 5 분에 Moscow 에 도착하니 배우처럼 잘 생기신 우태복/이경희 부부 선교사가 마중 나왔다. 18 인승 밴에 올라 이경희 선교사 안내로 한시간 넘게 이동하여 모스크바 내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예약된 호텔 (Prince Park Hotel) 에 도착했다. 모스크바에서의 일정이 너무 짧고, 짐을 각자 방에 풀어 놓고 다시 모이는 30 여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릴 우 선교사를 생각하여 짐은 옆에 놔 두고 Lobby 한쪽 조용한 방에서 우태복 선교사의 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신 지 10년 만에 우 선교사는 1992년에 성결교단에서 파송된 첫 선교사로서 모스크바에 와서 25년간 선교사로 지내면서 첫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에서 헌신자가 나와 교단의 신학교를 통해 목사가 되어 현재 그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다. 사역 이듬해인 1993년부터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모스크바 성결신학대학(현 러시아 성결신학대학)을 시작하였다. 모스크바 지역에는 <35가정 즉 70명의 선교사>가 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8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500만으로(세계 9위) 4대 종교 즉 모슬렘, 정교회, 불교, 유대교가 있고, 불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종교이며, 156개

민족이 산다. 1991년 말에 있었던 100만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나 '본토 귀환 본능'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나간 현상을 "제 2의 출애굽"이라 한다. 우리들은 우 선교사의 진지한 강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듣다가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강의 중에 언급한 신학대학 부지를 계획에는 없었지만 떠나는 12일 아침에 들려 보기로 하고 모스크바 호텔에서의 첫 밤을 지냈다.

♣ 10월 11일 ♣

10월 11일(수)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이라고 한다. 아침 일찍 우 선교사의 안내로 빠른 전철 편으로 심장의 힘찬 박동을 느낄 수 있는 Klemelin(성벽이란 뜻)에 도착했다. 1944년에 Leningrad를 탈환한 영웅 Statue of Marshal Zhukov 앞을 지나, Red Square에 붉은 벽을 따라 가며 Stalin 등 러시아의 공산주의 지도자들 동상이 밖에 진열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 속에 잠든 것 같이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Lenin Mausoleum(레닌 묘지)를 보았다. 밖에 나와 뒤쪽의 높고 붉은 벽돌담(klemelin) 너머에는 Putin 대통령이 집무하는 정부 청사가 있다고 하며, 오른쪽에 St. Basil's Cathedral이 있고, 앞에는 긴 3층 건물로 세계의 모든 명품들로 가득 찬 GUM 백화점이 있고, 그 옆에 Kazan Cathedral, 그 왼쪽에는 State Historical Museum이 있는 큰 광장 Red Square는 TV에서 자주 보는 곳으로 눈에 익었다.



GUM 백화점에서 명품들을 eye shopping 하며 우리는 이태리 음식 점심과 ice cream을 나눴다. 걸어서 '무명 용사의 불' 앞을 지나, Klemelin 입장표를 사서 성안으로 들어갔다. 정부 청사 앞을 지나 'The Tsar Cannon'(러시아 힘의 상징으로 1586년에 제작된 43 tons 청동 대포)과 'The Tsar Bell'(세계에서 가장 큰 무게 220 tons 되는 종인데, 1735년에 12 tons이 떨어져 그 후 울린 적이 없이 1835년부터 전시)을 지나, 여러 성당들에 둘러 쌓인 The Cathedral Square에 들어서 'Ivan The Great Bell Tower' 옆에 있는 'The Archangel's Cathedral'(대천사 사원)에 들어갔다.



대천사 사원은 1333년에 진 옛 성당 터 위에 1505-1508년에 러시아군의 수호신인 미가엘 천사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모스크바 공화국의 대공 및 봉건 제후들, 그리고 러시아 제국 황제들의 무덤으로, 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Annunciation Cathedral of The Moscow Klemelin'(성모 수태 고지 사원 모스크바 크렘린)은 모스크바공화국의 대공들 및 러시아 제국의 황제들을 위한



가정교회로 1484-1489 년에 석조 사원으로 지어졌고, 내벽에 그려진 예수님 Fresco 는 매우 뛰어나다. ‘Cathedral of the Assumption’ or ‘Dormition Cathedral of The Moscow Klemlin’ (승천 사원) 은 1326 년에 지어진 러시아 황제들의 주 성당으로 왕의 대관식 과 왕족이나 정교회 대주교의 장례식장으로 쓰여져 왔다.

‘State Armoury’ (국가 병기고) 에는 14 세기부터 사용했던 러시아 귀족들이 쓰던 권총

등의 무기들과 각종 보물들을 1805 년부터 일반에게 보여 주기 시작했다. 현재의 건물은 1844 -1851 년에 완공되어 귀족들의 계절별 마차와 말들의 화려한 장식품들, 금과 보석을 입힌 성경책들, 번쩍 번쩍 빛나는 왕좌들, Catherine the Great 이 Indian Temple 에서 가져온 세계에서 4 번째로 큰 ‘The Orlov Diamond’ 와 Tsar Nicholas I 때 Persia 에서 살해된 러시아 대사의 보상금으로 받은 ‘The Shah Diamond,’ diamond 가 꼭 입힌 Large Emperor’s Crown(금관) 등 화려했던 러시아의 과거를 보았다.



전철로 이동하여 저녁 7 시에 유명한 ‘러시아 Circus’장으로 갔다. 공연한 팀은 러시아 이외에도 이태리, 북한, 카잘스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2 시간동안 아슬아슬한 곡예로 공연하는데 북한의 공연을 보면서는 동족의 아련함을 느꼈다. 우리를 서커스 장에 내려 놓고 집에 가서 차를 가져온 자상한 우 선교사의 차 와 택시에 분승해 호텔에 와 모스크바의 두번째 밤을 지냈다.

♣ 10 월 12 일 ♣

10 월 12 일 (목) 호텔에서 check out 하여 18 인승 밴으로 2012 년 8 월에 모스크바 남쪽 지역에 500 평을 구입하여 마련한 ‘러시아 성결신학대학’ 부지에 갔다. 널찍한 공터 입구 오른쪽에 허름한 집이 있고, 집안에 들어 가니 사무실과 다락방과 서재 등이 깨끗이 꾸며져 있었다. 앞 벽에 “교사 건축을 위한 기도 1502 일” (2017 년 10 월 12 일 현재) 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건축 설계 조감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 12 명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이경희 선교사가 준비한 차를 마시면서 나누어 준 ‘성결의 빛’ 에 실린 기사 ‘사역 이야기-우태복 이경희 선교사’ 를 읽고 반세기 동안



러시아 선교사역의 산 증인인 두 분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러시아 성결신학대학’ 현 학장인 우 선교사가 준비해 나눠 준 ‘러시아 성결신학대학’ 안내서를 통해서 러시아및 벨라루시아, 몰도바 등 3 개 지역에서 인텐시브 과정에 120 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1502 일> 동안 부족한 건축비 (1 억 8 천만원)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학교 부지 방문을 마치고 Tsaritsyno, The State Musium-Reserve (짜리찌나 성지)에 도착하니 노란 단풍이 절정이다. 우 선교사도 러시아 선교 25 년중 올해 단풍이 제일 좋다고 한다. 모두가 노란 금빛으로 물든 러시아의 단풍은 참 특이했다. 우 선교사의 권고로 이곳 '맥도날드' 에서 먹은 Big Mac 은 미국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 2박 3 일간 성의껏 안내 해 준 우태복/이경희 선교사 부부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오후 4 시 5 분에 모스크바를 떠나 밤 10 시 15 분에 (-7 시간 차이) 보스톤에 도착하여 떠나기 전 매 모임마다 기도 드린 "6 가지 제목" 을 모두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8 일간의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17

김용환



러시아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Swift Memorial 연합 감리교회를 섬기는 목사 김용환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러시아 여행에서 제가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전에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께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역자라는 말을 듣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났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21장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 지를 알려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해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라" 고 말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배 오른쪽에도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변 가에서 외치는 사람의 말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집니다.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아니라 153 마리나 잡혔습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물고기의 숫자까지 세었습니다. 베드로가 세어 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했는데 수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틀림없이 베드로는 해변 가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조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전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의 도움으로 많이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조언한 분이 예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시라” 고 말하자 걸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을 향해 헤엄쳐갑니다. 해변에 가보니 이미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17절 말씀은 아침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국어 성경은 “이 사람들 보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이들보다” 라고 말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보다” 라고 물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이같은 대화가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받은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한 이유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삽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십 대 초에 서울에 있는 한 감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청년들을 위해 담임목사 사모께서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이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한 번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 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과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 는 말씀을 목회자가 되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될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게는 여섯 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데리고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학비를 대주기 위해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형이 동생들을 돌보시겠다고 해서 저는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후 처음 2년은 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했고 그 후에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고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주로 한인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지난 해부터 백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백인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 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만족스러우신지요? 이곳에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원래 선교사의 삶이 그렇듯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백인들을 섬기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와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한인교회에서는 예배나 기도회가 많아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백인교회에서는 훨씬 줄어들어서 교우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전에는 교우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을 만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백인들을 섬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온 것은 한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왔을지 모릅니다. 물론 백인들중에도 실망스러운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니 그 분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제 자신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러시아에 사는 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에 사는 분들을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행복의 비결은 주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줄 때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포함되었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내 고향

히브리서11:13-16

박찬수



러시아를 떠난 지 21년 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말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겼던 교회의 러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도왔던 니나 자하로브나, 주일학교 교사 이리나와 나탤샤, 사할린에서 유학 온 제냐와 지마, 에스토니아가 고향인 안토니나 할머니, 시를 사랑해서 자작한 시를 낭독해주던 마사 할머니, 그리고 알렉산드라 할머니 ...

알렉산드라, 그분은 간호장교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군인들이 베를린에 진격할 때 함께 갔었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90살을 넘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라 할머니를 더욱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5년 초겨울, 알렉산드라는 얼마 안 되는 뱀시아(연금) 받아서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아파트 문을 열려는 순간 뒤따라온 남자가 그녀를 때려 쓰러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온 그녀를 보니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왜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았는지요? 그 돈을 가지고 올 겨울에 신을 가죽 장화를 사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낼지요?” 그해 겨울 그녀는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안토니나 할머니가 먼저 병원 심방을 다녀와서 제게 전해주는 말: “발에 동상이 심하여 다리를 잘라 내야 합니다.”

제가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불쌍한 할머니 다리를 자르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음 날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가서 보니, 알렉산드라의 발과 다리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아내는 알렉산드라 다리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할머니가 도리어 제 아내 손을 잡고 하는 말: “사모님, 괜찮아요. 다행히 한쪽 다리만 자른다고 하니 감사해요.” 한 참 말없이 지켜보다가 발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렉산드라 할머니 다리 안 자르게 해주세요. 할머니 장화 사주라고 누가 제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발이 있어야 장화를 신잖아요? 제발 다리 자르지 않게 해주세요.”

알렉산드라에게 장화 사주라고 누가 제게 돈을 줬을까? 천사가 다녀갔을까? 들어보세요. 제 아내로부터 알렉산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희재 선교사의 사모님이 그해 겨울 한국을 방문해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 한 분이 예배가 끝난 후에 사모님을 찾아와서 알렉산드라 장화 값이라며 돈을 주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받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없으면 장화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음 주일, 안토니나가 와서 하는 말: “어제 병원에 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수술을 앞두고 다시 X-RAY 찍고 최종 진찰을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에 안토니나가 또 전하여 가로되: “아무래도 다리를 잘라야 한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자른다? 안 자른다? 다시 자른다? 이게 뭐냐구요? 의사의 최종 판단이 다리를 전혀 안 자를 수는 없고, 조금은 잘라내야 한다고. 그럼 얼마나? 발가락 조금 위까지 잘라내면 된다고 ...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화를 신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토니나 전도사>

I. 진짜 내 고향은?

러시아에 사시는 고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고국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남한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 고향(고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 미국? 아닙니다. 내 진짜 고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한국말로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왔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영원한 아버지 집’이라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간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평생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 바라보며 가고자 했던 또다른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사람의 인생 여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즐겁고 기쁩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바로 이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II. 하늘 아버지 집(본향)에 이르는 길

인생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죽음이 언제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죽음을 기다려라.” 자신이 세상을 떠가게 되는 날이 언제일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심판을 넘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는 이것을 압니다.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는 수많은 길(도)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본향(하늘 아버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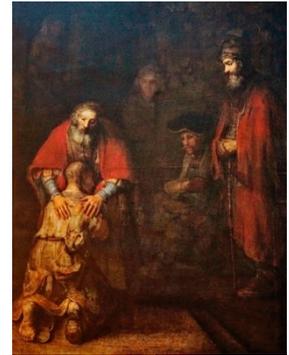
사람들은 고향이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잘 차려 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향에서 성공해서 돌아가야 환영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의 어떤 사람은 외국 나와 성공하지 못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 나와서 못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돌아

가면, 그 나라에서 주님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진짜 고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III. 사랑부터 먼저!

이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아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러시아가 사랑하는 에미따쥐 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에미따쥐가 사랑하는 화가 렘브란트의 걸작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앞에 21년 만에 돌아온 탕자처럼 섰습니다. 이 그림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예수회 신부로서 Harvard 대학 Divinity School 교수였던 ‘Henri Nouwen’이 쓴 같은 제목의 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Nouwen은 이 책의 부제를 “A Story of Homecoming”이라 붙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지요. 그는 여러 날 동안 이 그림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눅1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후 그는 불의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을 잠깐 들여다 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흠뻑 들여다 본 그 나라가 너무나 황홀해서 곧장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이 세상으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그는 다시 살게 된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물과 고통의 이 세상을 떠나 더 좋은 본향에 진정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잠깐 보여주시고 나서 나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는가?” 그가 하나님께 묻고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모르며, 또 그 집에 이르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 줘야 하는 사명 때문이요, 둘째는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을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 하고, 둘째 사명을 주님의 사랑 명령 (새 계명)이라 합니다.



미국 도시를 달리는 자동차 뒤 범퍼에 짧은 경구를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치적 구호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탄핵하라!”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는 차 뒤 범퍼에 붙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Life is short. Dessert first! (인생은 짧다. 디저트부터 먼저 먹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서양의 정식은 처음에 애피타이저를 먹고, 그 다음에 메인 디쉬를 먹고, 마지막으로 디저트(후식)를 먹지 않습니까? 보통 마지막으로 나오는 디저트가 양은 조금이지만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가장 맛있는

디저트를 못 먹고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식사 한 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것이고, 인생이 그렇게 짧으니 가장 좋은 것부터 먼저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Life is short. Love first! (인생은 짧다. 사랑부터 먼저!)”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먼저 사랑부터 하지 아니하면, 사랑 한 번 못 해보고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려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고향은 남한도 북한도 아니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 집입니다. (빌3:20-21)“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에 국적을 두고서 러시아에서 이방인으로 사시는 고려사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 따라 열심히 사랑하며 사시다가 언젠가 천국 본향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다스비다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을 처음 만난 나의 간증

윤만강



오전 뿌리야프나.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딸 집에서 손녀딸들을 보살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곧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겉으로는 팔팔하고 당당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찾지못해 답답하고 우울한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친구를 따라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만 조용히 자연 속에서 며칠 쉬고 싶었습니다.

수련회 3일째 밤에 억지로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만한 권만강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감감한 밤에 나무들이 장승처럼 서 있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 나무 사이로 별들만 반짝입니다.

나는 어떤 큰 나무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시커먼 파도같이 고독과 적막함이 밀려와 나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은 저 멀고 먼 태고로부터 모든 인생들을 삼키며 흘러 흘러와 나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은 이 세상 끝까지 따라와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따라다닐 엄청난 고독이고 적막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하나님이 계시다면 꼭 만나야지 그 분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영원히, 끔찍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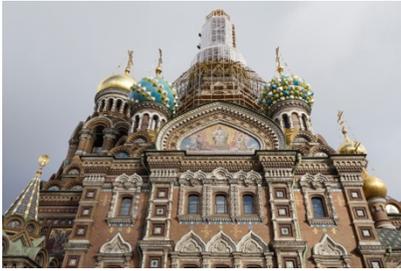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믿지않는 대학생들은 산 위에 있는 F cabin 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30-40 명의 대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번 사는 인생을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학위에 건다면 그것들과 함께 망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이 길만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하고 변화 많은 손을 내미는 순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산을 내려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몇 번 썩이나 되풀이 여쭙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좋으신 부모님, 형제들, 학교와 친구들을 떠 올리며, 어릴 때부터 자세히 나를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렸을 때 본 한 여름 냄새 나는 더러운 변소 칸에 똥물 속에서 득시글거리는 구더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변소 통 벽을 타고 올라오는 수많은 구더기 중 한 마리가 나로 보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마리 구더기입니까?
 밟아 문질러 죽여 주시옵소서. 살아 있을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친 상거지 중에 상거지로 보입니다.
 육이오, 한국동란 후에 길거리마다 볼 수 있었던 비참한 거지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러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쪽정이, 껍데기 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죽여달라고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내 뒤로 주님이 다가 오셔서 나를 조용히 감싸시며 말씀하십니다.
 "딸아. 여지껏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나는 이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알게 됩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또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 구더기 같은 나를 기다리셨습니까?
 구더기 같이 더러운 죄인,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나를 떠나소서. "
 아무리 몸 부림을 쳐도 이 분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느낍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이 분의 사랑은 너무 순수하고 참되고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시지 아니할 주님께 항복하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라면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나는 그때 이 세상에서 한번도 맛 보지 못한 평안과 안도감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한 죄인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아름답고 밝은 햇살이 온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3 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다리를 펴고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새 하늘이고 온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무 의미하고 슬퍼 보이고 지루해 보이던 세상이 아름다움과 질서와
사랑과 신비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주님과 첫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집안과 친족
가운데 첫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10 여년 기도했습니다. 다만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민게 되었고 친족들 중에도 많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게 되어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고독과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 장 10 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생명을 얻었고 또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짐을 압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 갈수록 더 풍성해 집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록 더욱 풍성해 집니다.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배워갈수록 더 풍성해 집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집니다.
즐겁고 힘이 납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나 러시아에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얻은 생명과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비스럽게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풍성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 줄수록 더 더욱 넘치고 풍성해 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10).



러시아에서 부른 찬양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хороший Бог хороший Бог
 하로쉬 보그 하로쉬 보그
 참 좋은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хороший Бог, очень хороший Мой Бог.
 하로쉬 보그 오친 하로쉬 모이 보그
 # ‘하뢰이’ 아니라 ‘하로쉬’ 로 발음해야 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Иисус, люблю Тебя. Препклоняюсь пред Тобой.
 이수스, 류블류 쩌바. 뿌레클라 냐유 뿌렌 따보이.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Praises & worship To Our king
 Буду служить Тебе, Восхвалять Тебя.
 부두 슬루쥬 (쨌) 쨌베 바스(흐)발라(쨌) 쨌바.
 Аллилуйя(알릴뤼야), Аллилуйя,
 Аллилуйя, Аллилуйя(알릴뤼야)

Amazing Grace (O, Благодать)
 나 같은 죄~ 인 살~ 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O, Благодать, Спасен Тобой
 오 블라가다(쨌) 스파손 따보이
 주 은~ 헤 놀~ 라 워~
 That saved a wretch like me
 я из пучины бед;
 야 이즈 뿌취~니 벤:
 잃 었~ 던 생~ 명 찾~ 았 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Был мертв и чудом стал живой,
 빌 묘~르(트) 비 추~담 스팔~ 쥬~보이
 광 명~ 을 얻~ 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Был слеп и вижу свет.
 빌 슬레(쁘) 빼 비~쥬 스페(뜨)



러시아 정교회

윤원길



이번 BNI 에서 간 러시아 선교 여행은 참으로 유익하였다.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러시아는 큰 나라이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6 이나 되며 인구가 1 억 5 천만에, 11 개의 time zone 이 있다고 한다 나는 특별히 러시아의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정교회는 로마제국이 동서로 나눌 때 동방측 즉 그리스, 중부 아시아, 러시아등이 여기에 속하며 동로마 수도가 비잔틴이어서 비잔틴 교회 라고도 한다. 정교회에는 약 2 억정도의 신도가 있다. 러시아 정교회는 서기 988 년도에 시작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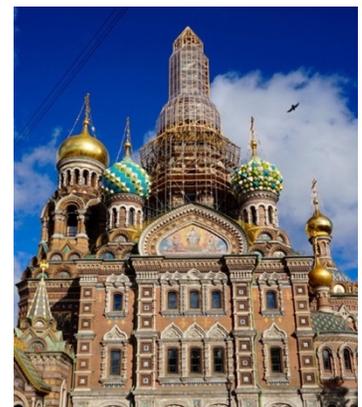
러시아 교회의 구원관은 성례 (성찬식등)을 잘 거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서방 카톨릭과 다른 점은 성령님에 관해서이다. 서방 카톨릭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치나, 동방정교 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만 나온다고 한다. 동방 신학은 요한 신학이 주축이나 서방 카톨릭은 바울 신학을 강조한다. 카톨릭의 교황이나 연옥설, 형벌 대체 등이 동방교회에는 없다.

러시아는 95%가 농노이었고 글자를 모르고 책도 없기 때문인지 예배 때 상징물을 많이 사용한다. 예배드릴 때는 거의가 촛불을 사서 놓고 기도하며, 서서 예배 드린다. 촛불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감을 상징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 교회에는 성상이나 화상이 가득 차 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 같다. 교회에는 악기가 없고 헌금도 없으며 예배 시간은 언제나 열려있다.

1991 년, 쏘련 공산권이 붕괴 되고 (74 년만에) 개방되었는데 이 공산정권 하에서도 하나님은 준비 작업을 하셨다고 한다. 구 소련이 15 개 공화국과 150 종족의 모든 언어를 통일시켰고 도로망을 쉽게 하고,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을 해제 시키셨다고 한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전 로마가 거의 전세계를 통일 시킨 후 도로망이 확장되고 그리스 말이 공통어가 되게 하여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게 되게 하셨던 것 같이. 만일 정교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면, 74 년 동안에 압박에 견디면서 순수하게 연단 된 교인들이 말씀의 복음을 들고 나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을 확신한다. 특히 Russian Jews 들이 복음을 믿어 이스라엘이나 14 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정교회 천년 역사에 한번도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Leo Tolstoy 가 유아기 때 세례를 받아 러시아 정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1880 년에 “Critique of Dogmatic Theology” (독단적 신학의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1901 년에 그는 출교를 당했고 그 책은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미 천년이나 지났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러시아 정교회에 커다란 개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런지. 이 일을 이루는데 한국인 선교사들과 그이들을 지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협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알 수 없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박대위



BNI 에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간다고 연락이 왔다. 선뜻 수락했다. 여섯 번 준비 모임의 첫 번 모임에 참석해서 두분 낮이 익은 장로와 두분 처음 뵙는 장로, 그리고 권사들과 두분 목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모임을 하며 한 순간, “왜 나는 그곳에 가는가?,” “무슨 목적으로 가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모임을 하며 우리 일행이 그곳의 고려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며 특송으로 “좋은 하나님,” “예수 사랑해요”와 “Amazing Grace”를 하기로 하여 연습하는 중,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Amazing Grace 를 체험하는 여행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느껴졌다.

St. Petersburg 도착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에 고려사람교회에 참석해 우리와 동행한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MIR(Mission in Russia - 교단을 초월한 선교단체)선교회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고 예배가 끝난 후에 고려인들을 만나 호텔에서 싸준 도시락과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서로 나누며 우리 일행은 그들과 서투른 한국어 내지 안 통하는 러시아 말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었다. 몇몇 선교사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박물관과 러시아 정교회들을 관광하고 일요일 오후에 고려사람교회에서 세(3)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일행 목사의 말씀과 일행 권사의 간증과 우리들의 특송을 마친 후 그곳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의 Worship Dance 를 같이 즐겼다. 예배를 마친 후에 MIR 선교회 목사들과 고려인 성도들과 만찬을 나누며 피를 나눈 한국인의 정을 노래로, 이야기로, 눈을 마주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월요일은 시내 관광 후 저녁에 MIR 선교회 선교사들 부부들과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짧은 세번의 만남이었지만, 아팠던 과거와 고난을 겪으며 모두들 20 년 이상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있는 MIR 선교회의 여섯(6) 선교사들과 여섯(6) 사모 선교사들, 그리고 Moscow 의 선교사 부부께 눈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야말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사람들이다. 이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기 다른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일한 것은 그들은 많은 것을 현지인들과 이웃에게 주기만 한 사람들이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뱃속까지 체험하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와 그들의 사역에 동참 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지인과 고려인들을 섬기며, 신학교를 통해 전도자를 양성하며 러시아를 떠난, 러시아 말을 하는 여러 인종들의 Diaspora 를 통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다.



또 한가지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나 꿈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다. 다만 하루 하루,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는 뜻을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두려움이 없으며 무서운 것이 없는 용기의 사람들이다. 과거의 아픔과 그 어려웠던 상황도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변하여 그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죽음의 역경을 살아온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차마 이야기 할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같은 방문자들에게 이야기 하는지 모른다.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픔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안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나를 항상 설레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실까?” 하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도 많은 주님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다. 다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언제 어디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Amazing Grace”에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

돌아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그날 성경 말씀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였다. St. Petersburg 와 Moscow 두 도시를 방문중 열정을 가지고 가이드 해 주신 세분 목사 선교사와 두분 사모 선교사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곳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일행처럼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같이 해 주신 분들이 없었다고 했다. 감사할 일이다. 또한 이번에 같이 여행한 좋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나는 좋은 분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지금 이 시간도 조용한 방에 앉아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으면 몽클한 가슴과 함께 왜 일인지 눈물이 고이려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It is Mysterious and Amazing!



러시아 vision Trip 을 다녀와서

김중연



러시아 vision Trip 은 보스톤지역의 BNI 중심으로 2017 년 10 월 4 일 오후에 출발하여 10 월 12 일 저녁에 돌아왔다. 다섯 분의 장로 부부와 두 분의 목사께서 참여하였다. 오랜 동안 기도와 현지 선교사들과 연락을 통하여 시간 계획과 면밀한 준비를 했다. 특별히 준비모임을 통한 언어(survival language)연습, 대원들 서로간의 섬김, 만나는 선교사들에게 기쁨, 위로, 격려가 되는 vision Trip, 현지교인들과의 은혜 나눔,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이해, 여행중 건강과 안전, 선교 안목의 확대를 목적으로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신 말씀을 전하라는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번

선교 Vision trip 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섬기고, 동행하는 대원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현지의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러시아선교의 일부를 피부로 경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다.

25 년이상 선교지에서 고독, 고통, 고난, 환난, 추위 그리고 핍박을 받아온 선교사들을 만났다. 동료사역자를 천국에 앞서 보내는 아픔을 경험한 이들 앞에 겸허해짐을 경험하고 왔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 3/20)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햇볕이 부족한 러시아에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오는 아픔들, 차거운 바람을 맞아 청력을 상실하는 선교사님, 암으로 위를 잘라내어 위없이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리고 충성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은 어쩔 수 없다. 이삭을 받치는 아브람의 그림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에 자식을 산 제물로 드리는 주님의 종들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했다. 남은 삶이 걸어 왔던 길보다는 짧겠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순례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MIR 선교회 선교사들의 협력 사역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를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경험했다. 첫 선교 vision trip 을 1999 년에 시작하여 여러 나라, 여러 선교지역을 방문 했지만, 모든 선교지마다 특색이 있고 선교사들마다 개성이 강했다. 이제는 그렇게 강인한 성격이기에 선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인지 대개의 선교지에서는 선교 연합이 쉽지 않음을 느껴왔다. 이번 러시아선교사들은 서로가 섬기고 연합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하고 감명을 받았다. 여러 교파가 연합해서 세워진 MIR 선교회와 초교파적인 BNI 는 서로 조직이 초교파적이고 선교를 지향하는 지역이 같아 앞으로 러시아 MIR 선교회와 선교를 지상명령으로 하는 BNI 의 선교 사역이 서로 어울려 선교협력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속한 성경공부그룹, 교회, 구역원들, 가족들이 이번 단기 vision trip 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어 감사했다. 선교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없이 오히려 어려움을 드리지는 안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5 살짜리 손녀가 러시아로 출발하는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기도 부탁을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Russia in Jesus Christ”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행장으로 출발하였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와 동역하는 그룹들의 기도로 무사하게 여행을 하고, 은혜를 가득 담아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마 목사 가족>



가장 큰 선물

권복태



나의 생애에서 맨 처음 선교라는 여정에 몸을 실은 것은 10월 4일, 그것도 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러시아였다. 8박 9일의 그야말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여행은 나의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도 같다. 여행지에서 어느 목사님은 선교여행을 하고 나면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감동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교사로서의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렇게 까지 가리라 믿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로서 해야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된 것 같다.

출발하기 전, 아니 맨 처음 선교여행 팀이 구성될 때 만 해도 나는 선교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유럽의 변두리, 아시아에서 보면 Far West 그래서 유라시아라 불리고 오랫동안의 공산주의로 인해 닫혀 있다가 개방된 지 채 30년이 안된 그 땅을, 거의 모두가 70세가 넘는 단원들로 채워진 그야말로 황혼기의 잔잔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여행 팀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에 구성된 팀원들의 준비를 위한 잦은 모임이 출발 전 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이 여행에 대한 나의 관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달에 두 번씩 만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박 찬수 목사와 김 용환 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정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 마음이 열림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명확한 인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히 한국어,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합창하며 불렀던 찬양들은 그 짧은 가사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영혼을 흠뻑 적셔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출발 전 나의 의문은 왜 선교사들은 자기의 집과 일가 친척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이국 땅에서 무모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가? 그들이 드리는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은 과연 듣고 계신가? 그들이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며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이며 하늘 나라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 단원들이 함께 드린 기도들 중 가장 많이 와 닿은 기도 제목은“선교사님들에게 은혜 (기쁨, 위로, 격려) 가 되게 하소서”하는 것과“현지인 (러시아인, 고려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은혜 나누게 하소서”라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세번에 걸쳐 그들과 가진 예배와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신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과 간증등을 통하여 나의 의문은 말끔히 씻겨 나갔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나의 마음을 통하여 퍼져 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뚝 선 것처럼 보이던 그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나처럼 회의하고 두려워하며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죄스러움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고 눈물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그들이 두려워 했던 것은 자신들이 버림 받고 내팽개쳐 졌다는 두려움이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냥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어울려져서 아리랑과 도라지를 부르며 눈물 흘린 것 밖에...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 힘찬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쳐 쓰러져 호렙산 로렘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확신이였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러시아의 박물관, 궁전 그리고 찬란하게 지어진 성당들을 둘러 보았다. 금으로 온통 도배된 궁전 내부와 조각상 등으로 휘황했던 당대의 사치와 화려함을 둘러 보았지만, 지금도 내 기억에 강력히 못 박혀 있는 것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고려인들의 어눌한 한국어말과 그들의 얼굴에 박혀있는 영혼 같은 주름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잔잔한 미소들이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 여정도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가고 싶다. 진정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 진다면 나는 앞에 말한 여러가지 의문에서 풀려나게 되고 더욱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서 언급해야 할 이야기는 내게 주신 여러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모습들이다. 연세가 모두 많으셨지만 긴 여행 힘든 일정을 모두 소화해 내었고 무엇보다 서로가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다.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바 자기 역할을 훌쩍 뛰어넘어 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팀원들이 이번 여행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드린다.



짧지만 길었던 시간

김용환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동안 러시아로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다. 나는 보스턴 느헤미야 인스티튜트에서 처음 보낸 선교팀 12명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 찍는 일을 맡았다. 여행이 길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마치고 나니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행을 마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앞으로 살 날은 산 날보다 훨씬 짧을텐데 길게 느낄 수 있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다. 그 동안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기여하며 살았나 돌이켜 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 온 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보여줄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매일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 가치 없는 일에 보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번 여행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여행을 하고 나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여행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뭔가 전보다 나아진 것이 있어야 여행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러시아에서 돌아오기 직전 내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심터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다. 선교사들이 6년 이상 사역한 후에 쉬고 싶을 때 마땅히 갈 곳이 떠오르는 선교사가 몇명이나 될까? 물론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새로운 후원자를 구하는 등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책도 읽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선교사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다.



여행에서 돌아와 강평회를 하던 날

모스크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부부를 초대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나 할까?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아무 것도 실천하지 못하면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여행은 참으로 꿈같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래 동안 내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 St. Petersburg 와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께 안부를 전하고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안내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도 드려야겠다. 사진도 보내 주면 좋아할 것이다. 이번 러시아 선교 여행에 동행할 기회를 주신 분들과 동행한 한 분 한 분들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재정보고

권복태

총수입	26,060
비용	25,337.16
항공료	10,464.00
비자발급	2,967.69
선물비	262.34
식사	1,774.14
교통비	727.71
관광비	3,115.18
숙박비	3,332.24
선교비	2,369.86
잡비	128.08
강평회	195.92
소계	25,337.16
잔액	722.84



강평회 보고

김문소



10월 25일(수) 오전 10시에 러시아 선교여행을 정리해 보는 강평회를 김용환 목사가 시무하는 Sagamore Beach 의 Swift Memorial 연합 감리교회에서 모였다. 여기에 BNI를 대표한 김학수 목사도 함께 했다. 러시아 선교여행 중에도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는 중에 은혜롭게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강평회 하는 날도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교회에서 7번째이며 마지막 모임이 됐다.

먼저 윤원길 장로의 기도와 박찬수 목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시편 105:1) 설교 말씀으로 감사예배를 드린 후, 김용환 목사가 8일간 찍은 사진들을 감상하고, 이어 강평회 시간으로 선교 여행을 마친 소감들을 나눴는데, 김중연 장로는 소감을 읽는 중 St. Petersburg 의 고려사람교회에 있는 통나무 십자가를 생각하며 북받치는 감격에 눈물이 가려 떠듬거리며 읽기를 마쳤고, 윤원길 장로는 ‘러시아 정교회’ 를 얘기해 주었다. 박대위 장로는 어떤 비전이나 꿈도 없이 오직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는 그곳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감명 깊었다 하였고, 권복태 장로는 재정을 맡아서 걱정을 했는데 흑자가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김용환 목사는 한인 선교사들이 이곳에 오실 때 숙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사택 위층의 방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 우리들이 모은 선교금 중 잔액인 \$722.84 은 BNI 에 지정 현금하기로 하였다.



오늘 다 발표 못한 내용들은 금년 중에 출판할 선교 여행기 책자에 실리며, 그 내용은 BNI website 에도 실리도록 하고 오후 1시에 강평회를 마쳤다. 점심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김용환 목사 댁으로 이동하여 사모께서 정성껏 준비한 별식 Lobster 슝 등 맛있게 먹고 김학수 목사와 함께 즐거운 단체 사진도 찍었다. 아멘.